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궁에 빠진 2학기

학생대표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 등 답변 요구'
대학본부 '교무위원회 등 추가 논의 시사, 확답은 피해'

지난 28일,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상상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기 간담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운영 및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지급 여부 ▲성적평가시 절대평가 여부 ▲실습·실기 강의 방식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이창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 4명과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4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 31일 교무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학본부는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에 대해 31일 열리는 교무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안상욱(학성장학팀) 팀장은 “2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 진행하는 방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2.5단계로 격상 됐을 때 9월 마지막 주까지 온라인 강의 진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교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는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학생회 ‘한결’이 재학생 1,2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에 찬성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1,222명 중 1,128명(92.3%)으로 나타났다.

최 처장은 “여전히 상당수 대학이 2학기에 대면강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대학마다 대처 방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지급 여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져”

학생대표는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대학본부는 확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 7월 1일 본교 재학생 중 256명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본부는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최 처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환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재정적 어려움도 이유로 들었다. 노 처장은 “2학기에도 장학금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1·2학기를 합쳐 학교에서 130억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 강의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어”

학생대표는 2학기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본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블렌디드 강의 진행 여부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는 추가로 교양 수업 중 일부에 P/NP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요청을 거부했다. 조혜경 교무처장은 “강의 진행 방식에 따라 정할 문제다. 2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실시처럼 극단적으로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P/NP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실기 강의 방식,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돼”

학생대표는 전면 온라인 강의가 시행될 경우 실습·실기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었다. 대학본부는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와

마찬가지로 교무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교무위원회에서 제한적 대면수업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해 강의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과목의 특성상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수강 인원을 1/2 혹은 1/3로 줄여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블렌디드 강의 진행으로 수강인원이 한정돼 불편을 겪는 학생이 많다는 학생대표의 지적도 있었다. 안 팀장은 “9월 1일, 2차 수강신청 정정 시작이다. 가능하면 서면

신청을 허용하고 수강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학생들의 학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총장은 “상생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교무위원회 논의 이후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한성대신문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학생자치기구 2학기 주요 공약 살펴보기

총학생회 정기 간담회, 이벤트성 축제 활성화



▲질문에 답변 중인 박민수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이하 총학) '한결'은 정기 간담회 개최와 간단한 이벤트성 축제 다양화를 이번 학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기 간담회는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은 지난 3월부터 대학본부와 4차례에 걸쳐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지난 학기에 정기 간담회를 통해 재단 장학금 지급, 온라인 수업의 질 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과 소통하며, 건의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은 이벤트성 축제를 진행해 학생의 문화생활에도 힘을 예정이다. 박 회장은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총학은 ▲총학생회 달력 게시 ▲수강신청 매뉴얼 매 학기 갱신 ▲분실물 관리 체계화 ▲시험 기간 상상관 지하 2층 24시간 개방 ▲주기적인 총학 버스 운영 등을 지난 학기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학생회 달력 게시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꾸준히 이행된다. 총학은 당초 약속했던

온·오프라인 달력 게시를 대신해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학내 커뮤니티에 달력을 올리고 있다. 박 회장은 "달력을 통해 학우들의 비교과 및 장학금 신청을 돕고 있다"며 "현재는 '한성대 꿀팁 사전'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까지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강신청 매뉴얼 매 학기 갱신은 지난 학기에 이행이 완료됐다. 총학은 학사운영팀과 논의해,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들이 수강신청 장바구니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 회장은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의 경쟁률을 미리 알고, 차선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당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분실물 관리 체계화는 지난 학기 대면강의 불발로 이번 학기에 이월됐다. 박 회장은 "블렌디드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면 분실물 관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험 기간 상상관 지하2층 개방과 총학 버스 운영은 본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인해 이번 학기에도 진행되지 않는다.

총대위원회 대의원 구성 후 미비한 공약 이행

총대위원회(이하 총대)는 진행하지 못한 공약을 대의원 구성 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2학기 공약 이행 기본 방침을 세웠다. 대의원·상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예준(사회과학 4) 총대 의장은 "2학기까지 대의원과 상임위원을 뽑지 못하면 총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대는 지난 학기 2019학년도 총선거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의원 관련 분야, 감사 관련 분야, 선거 관련 분야로 나누어 공약을 제시했다.

대의원 관련 공약은 ▲대의원·상임위원 OT ▲대의원 관련 홍보 ▲대의원·상임위원 혜택 증진 ▲대의원·상임위원 개선사항 수렴 ▲타 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이다. 대면강의 불발로 이뤄지지 못한 타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약은 대의원 구성 후 진행할 계획이다. 대의원·상임위원 OT는 선출자 확정 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의원 관련 홍보는 대의원에 대한 설명이 담긴 PPT자료를 온라인으로 선출자에게 배포해 진행된다.

대의원·상임위원 혜택 증진과 개선사항 수렴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감사 관련 공약은 ▲감사 세칙 구체화 ▲감사 정당성 문제 해결 ▲감사지침서 및 감사에시집 제작 ▲감사 내용 공개 등이다. 감사 세칙 구체화 및 감사 정당성 문제 해결을 제외한 공약은 이행이 완료됐다. 감사지침서와 감사에시집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상임위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감사 세칙 구체화는 방중에 진행된 감사를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감사 세칙을 바꾸는 것이다.

감사 정당성 문제 해결은 현재 총대 내부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총대는 감사위원회를 외부로 분리하거나 단대별로 상임위원을 선출해 총대 감사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선거 관련 공약은 ▲투표일 확대 ▲투표현황 실시간 공지 ▲교내 언론기관에 선거 결과 게시 ▲선거 세칙 체계화 등이다. 지난 4월 진행된 보궐선거와 세칙 개정을 통해 모든 선거 관련 공약이 이행됐으며, 11월에 있을 총선거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질문에 대답하는 장예준 총대의원장

학생복지위원회 블렌디드 수업 여부에 따라 공약 변경



▲인터뷰 중인 차주는 학생복지위원장(좌)과 정해솔 부위원장(우)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도란'은 이번 학기에 ▲낙후시설 재정비 및 사고 발생 방지 ▲상상형 영화제 개최 ▲시험기간 확대 상주 ▲HOPE 홈페이지 개선 ▲학교 주변 편의시설 제휴 확대 ▲월별 키워드 이벤트 ▲대외활동·봉사활동·공모전 달력 게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중 낙후시설 재정비, 상상형 영화제 개최는 블렌디드 강의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진행된다. 시험기간 확대 상주는 1학과와 마찬가지로 임시상주 형식으로 바뀐다. 차주는(사회과학 4) 학복위원장은

"지난 학기에 대면강의 학생을 위해 임시상주를 진행했다"며 "이번 학기도 임시상주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대체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OPE 홈페이지 개선은 비교과 프로그램 홈페이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학기에는 메뉴 부분이 추가됐으며, 이번 학기에도 학생의 의견을 받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주변 편의시설 제휴 확대는 음식점 등 문화시설과 제휴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 위원장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을 위해 '여기어때'와 같은 숙박업체와 제휴를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1~2곳 정도의 제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복위는 이번 학기에 마스크 배부 사업을 추가했다. 차 위원장은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면 쉽게 오염되고, 마스크 줄이 끊어질 염려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학복위가 제시한 공약 중 무산된 공약은 ▲학복위 수강신청 모니터링 요원 신설 ▲자판기 종류 교체 및 오류 점검 ▲한성대 굿즈 제작,

판매 및 기부 등이다. 수강신청 모니터링 요원 신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차 위원장은 "학사운영팀과 학사 기획팀으로부터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생이 수강신청 정보를 얻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처사가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자판기 종류 교체 및 오류 점검은 현재 코로나19로 업체 측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무산됐으며, 한성대 굿즈 판매 및 기부는 기념품 가격을 낮춰 수익이 나지 않아 이행되지 못했다.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2019학년도 전기·후기 합동 온라인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 20일, 미래관 DLC에서 2019학년도 전기·후기 합동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행사를 실시간 중계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총장 등 교내 인사와 주요 수상자만 참석했다. 이번 학년도에는 학사 전기 976명, 후기 483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학사 전기 90명, 후기 50명 등 총 1,59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21명

▲학과추천 공로대상자 36명 ▲특별 공로상 5명 ▲총동문회장상 1명 등 총 63명의 수상이 이뤄졌다. 이 중 12명이 대표로 현장에서 상을 받았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 ▲학사학위과정 공로상 1명 등 총 2명이 수상했다. 행사에 참석한 장효진(패션 4) 졸업생은 "학위수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아쉽다"며 "4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학교가 그리울 것 같다"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 교과목 추가 개설

창의융합교육원(C&C School)은 2학기부터 창의융합 교과목에 '융합 기초 교과목', '융합 모듈 교과목'을 추가 개설한다. 지난 학기에 이어 '창의 융합형 프로젝트 교과목'과 '선택필수교양' 수업도 진행된다. '융합 기초 교과목'은 제1·2트랙이 서로 다른 분야인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목이다. 이번 학기에는 '디자인 대학 융합 기초 교과목', 'IT공과대학 융합 기초 교과목'이 운영된다. '융합 모듈 교과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사업 수요 및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과목을

말한다. 'Dual Editor 융합 모듈'과 'Big Data 융합 모듈'이 이번 학기에 진행된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이 중요해졌다"며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융합 교육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창의 융합 교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찾고 실전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우 기자 rtjrtf@naver.com

상상빌리지 지하 1층, 제2학교식당 설립 무산돼

지난 20일, 시설지원팀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학교식당 설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2학교식당을 운영할 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본부는 공지를 통해 상상빌리지(이하 상빌) 지하 1층에 제2학교식당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우(시설지원팀)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적어 업체 입찰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그 대안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상빌 지하 1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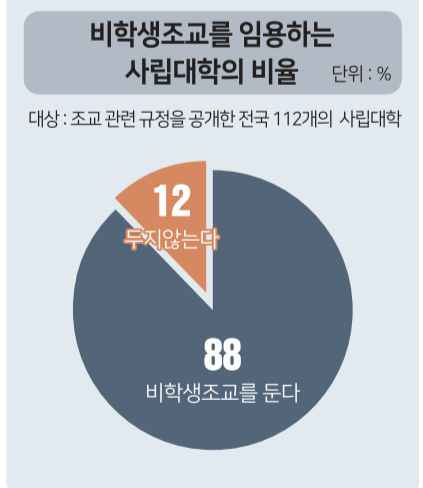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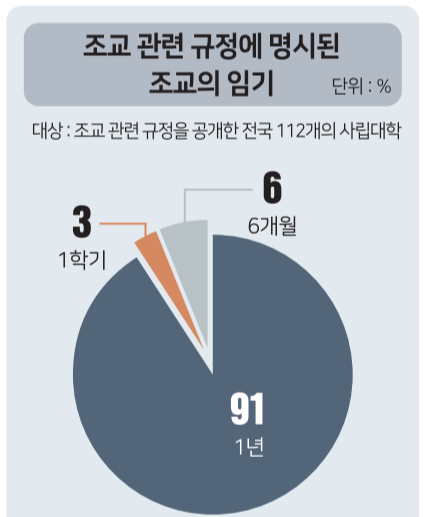
취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제2학교식당은 학교 주변 재개발로 학교식당 과밀화를 대응하기 위해 계획했던 공간"이라며 "대신 상빌 지하 1층을 취식공간으로 개방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빌 지하 1층을 이용하는 학생은 종류 제한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박 팀장은 "현재 교내에는 학생이 식사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생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주진솔 기자 twoxo@naver.com

조교도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세 가지 문제

2017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학교 한태식(보광) 총장이 학생 조교를 대상으로 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대학의 일방적인 조교 정원 감축과 정부의 미온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대학과 조교간의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성균관대학교 조교 대량해고, 성신여자대학교 조교 갑질 등 조교와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국가나 교육부 수준에서 조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대학이 조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적을 수밖에 없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2항 그리고 조교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교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마련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조교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조교는 교원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 별개의 직군으로 독립했다. 조교의 역할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습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고 서술했던 구 『교육법』과 달리, 『고등교육법』에서는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명시했다. 학습에 관한 사무가 학사에 관한 사무로 변경되면서 조교가 할 일이 많아졌고, 각자 맡은 역할에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

조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워지

면서 모든 대학의 조교 운영방식은 각 대학의 재량에 맡겨졌다. 현재 대학별 조교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총신대학교, 울산대학교와 같이 조교의 급여 명목이 임금인지 장학금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업무에 따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업무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부르는 명칭까지 천차만별이다. 학사·사무·행정을 업무로 하는 조교는 각 대학별로 부르는 명칭이 199개나 되지만,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교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112개의 사립대 중 94개의 학교가 조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9개의 대학교가 연임 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대부분의 조교가 1~2년 후에는 학교를 무조건 떠나야한다. 직업으로서 지속성이 전무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조교 스스로 조교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김병국(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조교가 대학평의회 등에 참여하면 학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조교의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짧은 편이라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학이 노동자 신분인 '비학생조교'와 학생 신분인 '대학원생 조교'로 나눠서 조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전국 112개 대학 중 비학생조교를 두는 곳은 99개 대학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비학생조교와 대학원생 조교를 같이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과 고용계약을 맺은 비학생조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대학원생 조교는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구분된다.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 임금은 장학금으로 처리된다. 대학원생 조교는 임기 중간에 면직 될 경우 받았던 장학금을 다시 대학에 환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리한 처사다.

법적 근거의 미비, 불안정한 근로 환경, 근로자와 학생으로 나뉘는 신분의 차이는 조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김래영(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무국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혼란스러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교육당국의 조교 관련 재량권을 입법으로 축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에 <대학조교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속 조교와 현재 조교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다. 15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다. 2018년,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학내 조교는 이렇게 답했다.

"학과 업무 중 조교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만 학내구성원으로도 대우받지 못한다."

절절한 하소연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조교 처우 개선의 시작?

지난 2월 28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 구성원에 교원·직원 및 학생과 더불어 조교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평의회는 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시행령의 규정 사항과 『고등교육법』의 평의회 구성원 관련 규정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9조제2는 평의회를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기존의 시행령은 조교를 제외하고 교원·직원 및 학생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했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이면서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두 법령의 규정이 모두 적용됐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에 『고등교육법』을 따라야한다고 명시했지만, 현재 국내 사립대학 174개교 중 33개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평의회 구성원에 조교를 포함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간극이 사라진다. 법 해석에 따른 혼란이 없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은 조교를 평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의무가 생긴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원래 평의회 구성원에 조교가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평의회에 조교를 포함하는 규정이 의무화되어 과거보다 조교의 평의회 참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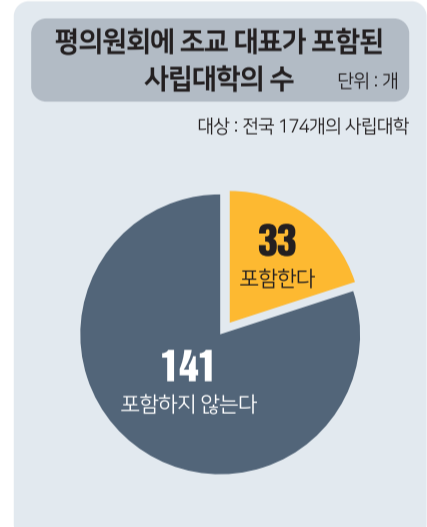
조교가 평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학사의 조교 관리 체계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조교의 업무 규정과 조교 관련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기존 조교 처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평의회 구성에 조교 포함 의무화

교육부의 관리·감독 강화, 평의회 구성 절차 민주화 등 보완 필요해

조교 집단이 처우 개선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하지만 평의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조교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안 이외에도 대학의 법적 의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교육부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 연구원은 "대학 재정에 제재를 가하거나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등 보다 강제성을 띠는 관리 규정을 도입하면 학교의 의무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의회 구성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있다. 일각에선 평의회 구성을 구성단위 내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본부의 의대로 평의회 논의 사항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구성단위에서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실질적인 학내 구성원 처우 개선은 물론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엇보다도 조교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립대학의 조교는 계약직 신분이며, 소수 집단이다. 그들은 학내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계약 연장, 취업 등 개인적 문제에 더욱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조교의 평의회 참여는 조교 처우 개선의 시작이지만, 조교 집단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 연구원은 "대학본부의 투명한 학사 행정 처리, 평의회 등의 대학논의위원회 내 공정성 강화가 학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조교를 포함한 학교 교직원들의 관심과 여론이 많이 형성돼야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집단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내돈내산이 아닌 남돈내산

유튜버와 광고주, 뒷광고로 소비자 속여

최근 유튜버는 이른바 '뒷광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논란은 7월 15일 '디스패치'의 보도로 시작됐다. 디스패치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 뒷광고라고 밝혔다. 이후 다른 유튜버들까지 뒷광고 논란이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8월 4일, 유튜버 '애주가TV참PD'는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했다. 이후 문복희, 쓰양, 리비, 헨지 등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협찬을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숨기거나,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구독자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는 채널 영상 214개 중 무려 55개가 뒷광고 영상인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 유튜버 보검은 생방송에서 광고주에 대한 뒷광고를 했음에도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몇몇 유튜버들은 은퇴까지 선언했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는 등 광고주와 유튜버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유튜버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규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제3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5조제5항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의해 금지돼 있다.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가 뒷광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뒷광고 실태를 폭로한 유튜버 '홍사운드'는 "유튜버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뒷광고"고 밝혔다. 실제로 한혜연은 유튜버 채널 '슈스TV'에서 신발 광고로 약 3,000만 원 이상을, 화장품 광고로 약 2,000만 원 이상을 광고료로 받았다.

뒷광고 논란의 이면에는 광고주도 포함되어 있다. 심사지침 제5조제5항에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유튜버뿐 아니라 광고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뒷광고가 다른 광고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광고주는 뒷광고를 요구한다.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특성과 광고를 기피하는 소비자의 성향이 만나면서, 뒷광고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된다. 마혜연, 심성욱의 '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부당 표시·광고에 관한 연구'에선 '뒷광고를 할 경우

유튜버, 대가로 최대 수천 만 원, 뒷광고로 단기간에 큰 수익 얻을 수 있어

광고주, 광고영상 기피하는 심리 이용, 기존 광고보다 더 큰 효과에 뒷광고 요구

소비자, 뒷광고 관련 공정위 지침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소비자는 게시자가 쓴 글을 자발적·독자적인 광고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서술한다. 유튜버 홍사운드는 "영상 내 광고를 고지할 경우 사람들이 광고 영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청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뒷광고가 드러나자 여러 유튜버들은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광고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광고주는 자신의 잘못을 방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뒷광고를 의뢰했다고 시인 및 사과한 광고주는 단 한 곳도 없다. 광고주는 뒷광고가 불법임을 알고도 유튜버에게 뒷광고를 요구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지 않은 채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가 소비자에게 생소하다는 것도 뒷광고 성행의 원인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공개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선 광고를 하는 유튜버나

소비자들이 심사지침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경(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심사지침은 광고의 주체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번 뒷광고 논란을 계기로 심사지침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뒷광고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케팅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 총 458건 중 277건(60.5%)이 표시광고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7개의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뒷광고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한다. 이재경 교수는 "유튜버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광고 관련 지침을 철저히 집행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뒷광고 관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은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에게 질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명 유튜버 문복희, 양팡은 뒷광고 논란 이후 구독자 수가 각각 30만여 명, 50만여 명 가량 감소했을 정도다. 이재경 교수는 "대중이 유튜버의 진정성을 신뢰한 만큼 실망, 배신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튜버가 광고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뒷광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유튜버는 방송의 책임자이기에 유료광고 여부를 밝히는건 자신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뒷광고가 계속 이어진다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경 교수는 "소비자들은 뒷광고로 인해 의도에서 벗어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자발적 사용 후기에 소 개한 제품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소비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뒷광고 논란은 유튜버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소비자를 배신한 결과다. 광고주 역시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광고 효과를 위해 소비자를 배신했다. 황장선(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버, 광고주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뒷광고와 같은 관행은 근절되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유튜버 및 광고주 모두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뒷광고 해결할 개정안, 여전히 미흡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제재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뒷광고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 경제적 대가'가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경우'만 제시돼 있는데, 이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는 경우'까지 확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에 제시된 '블로그 등 주로 문자 형태의 방법' 외에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형태의 방법'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제재 대상이 사업자에

공정위 개정안, 제재 대상의 보완 필요

뒷광고 금지법 처벌 수위 높여야

한정돼 인플루언서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장선(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사업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인플루언서도 유튜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면 엄연히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이어 황 교수는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태희(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현재 개정안은 사업자의 범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며 "법이 집행될 경우, 사업자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뒷광고 금지법은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이 사업자에 한정돼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지침 제3조의2는 '유명인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뒷광고 금지법은 해당 규정을 토대로 유명인이 제3조의2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다.

뒷광고 금지법의 처벌 규정은 광고 수입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 교수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작년에도 뒷광고를 집행한 주요 기업에 1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경(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적은 매출을 거두는 인플루언서도 일률적으로 사업자로 파악해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뒷광고를 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 경제적 대가	→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	→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원칙과 사례

지고 있지만, 처벌 대상의 맹점과 처벌 실효성 부족으로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황 교수는 "유튜버와 광고주 양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이들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뒷광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현경 기자
dksugrud24@naver.com

청년 정치란 젊은 정치다

“정치와 청년 정치는 하나로 봐야한다”

〈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의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진짜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답을 듣기 위해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엔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은 IT기업 대표이자 교육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 이준석 대표다.

주진술 기자 twoxo@naver.com

Q. 청년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말 그대로 젊은 정치다. 청년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청년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정치를 청년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청년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 청년의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서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의 취업난도 해결되는 것처럼 정치와 청년 정치는 하나로 봐야 한다.

Q. 정치와 청년 정치는 하나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기성세대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 청년은 취업, 결혼 등으로 변화가 잦다. 반면 중장년층은 청년층처럼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기성세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변화 없는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 정치인은 모호한 목소리로 의견을 자주 바꾸는 청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 같다.

Q.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의 기득권 세력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에게 민주화 운동 혹은 산업화 영웅이라는 이력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젊은 정치인은 갖기 힘든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은 그 이력을 뛰어넘을 무언가를 요구한다. 더욱이 현재 기득권 세력은 거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들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10~20년이 지나면 젊은 세대가 각자의 실력으로 기득권 세력을 뛰어넘는 날이 올 것이다.

Q. 청년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일단 젊은 세대가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고등학생의 약 20~30%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의회 활동을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필수였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교 졸업장 대신 자신만의 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 취업 준비하는 것만큼 노력하면 구직은 어렵지 않다. 주눅 들지 않고 정치에 도전해야 한다.

Q.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권자로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A. 투표하기 전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공약을 살펴볼 때 젊은 층에게도 혜택이 가는지, 예방 차원에서 좋은 정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개인의 관점보다 국가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Q. 청년 정치를 위해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정책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 국가장학금이 처음 시행됐을 때 학생 대다수는 환영했다.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예상보다 소득분위가 높게 나온 학생이 많았다. 당연히 반발도 심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Q. 청년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궁금하다.

A. 주택정책이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주택과 청년이 바라보는 주택은 다르다. 기성세대에게 주택은 가정을 꾸려야 하는 공간이지만 청년이 원하는 주택은 쉼 수 있는 공간이다. 앞으로의 주택은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0평대 주택을 만드는 데 평당 약 4천만 원의 시세가 나온다고 가정하자. 그 중 1~2평은 다용도실이고 3~4평은 주방이다. 코인 빨래방을 이용하고 외식을 즐기는 청년에게는 의미 없는 공간이다. 두 공간만 없어도 2억 원을 아낄 수 있다.

Q. 청년 정책을 살펴볼 때는 무엇이 중요한가?

A. 경제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를 하기 앞서 경제적 관점으로 정책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혜택에서 수혜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청년은 노인을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질병 치료비 지원이 아닌 질병 예방 검사가 더 이득일 것이다. 치과 시술 중 하나인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처리가 되면서 치과를 찾는 청년이 많아졌다. 덕분에 치아 질병 예방률이 높아졌고, 치아 보험료도 사용되는 국가 예산도 많이 줄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국가 재정 소비를 아낄 수 있다.

Q. 정치에 참여하고픈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정치에 대한 환상, 진입의 두려움을 깨야 판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민주화운동, 산업화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이제 없다. 누가 들어도 '재'는 특별한 일을 했구나하는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의 리더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일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할 것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국회의원에도 도전하고 나중에는 교육감에도 도전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뭐든 열심히 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 : 이준석 대표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다.

이준석

2011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4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2016 새누리당 노원병 지역 위원장

2017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2018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0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편집자주〉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욱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첫 시작은 신체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다. 학교로 향하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기까지. 짧은 계단, 식당의 작은 문턱, 길 위의 돌부리 하나가 그를 가로막는다. 신체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등굣길과 하굣길, 교정, 카페 등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를 다녀보았다. 김선우 기자 rldjrrlf@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15cm에 가로막힌 하루

학교로 가는 길

1호선 회룡역 옆 버스정류장에서 등교를 시작한다. 휠체어를 펴고 앉는다. 평소였다면 뛰어 올라갔을 계단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잠시 뒤 내려온 엘리베이터 칸. 휠체어가 겨우 들어간다. 긴 복도를 지나 또 엘리베이터를 만난다. 아직 엘리베이터 2개를 타야 승강장에 도착할 수 있다. 회룡역 승강장까지는 20분 이상 걸린다. 걸어서 가면 5분이다.

승강장에 들어와 노선 표지판을 본다. 창동역에서 환승을 해야 4호선을 탈 수 있다. 한성대입구역까지는 12개 정거장을 지났다. 평소라면 도착한 위치에 타거나, 환승에 유리한 칸으로 간다. 하지만 휠체어에 탄 채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각 객차 끝에 있는 출입구를 가야한다.

역 안에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스크린도어가 열린다. 전동차를 향해 휠체어 바퀴를 힘껏 굴린다. 그 순간, 단차 사이에 바퀴가 걸린다. 식은땀이 난다. 같이 간 기자가 뒤에서 밀어준 덕분에 단차 사이를 지난다.

전동차 안에 휠체어 전용공간이 보인다. 휠체어를 뒤로 밀어서 세웠다. 그런데 휠체어를 고정하는 벨트나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휠체어가 뒤로 밀려난다.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손은 바퀴를 잡는다. 손에 땀이 흥건하다.

몇 정거장 지나치고 나니 처음 들어올 때는 느껴지지 않았던 시선이 느껴진다. 승강장 문이 열릴 때마다 휠체어를 쳐다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창동역으로 열차가 진입한다. 손에 다시 힘을 준다. 승강장에 내려 주변을 살펴본다. 엘리베이터가 보이지 않는다. 휠체어를 끌고 돌아다니지만 환승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다시 1호선에 탑승한다. 다음 환승이 가능한 곳은 동대문역이다. 12개 정거장을 다시 지나야 한다. 평소보다 7정거장을 더 가야 등교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캠퍼스에 들어서서

캠퍼스에서 휠체어를 타기 전, 먼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연락한다.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몸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장애학생보조기구를 대여해 준다. 전동휠체어, 휠체어용트레이 등 각종 장애학생보조기구가 있다. 전동휠체어를 빌리기로 하고 신원과 대여 목적 등을 밝힌다.

휠체어 전원을 켜고, 학교 정문에 들어선다.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보행 동선도를 찾는다. 동선도에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표시돼 있다. 우선 공학관에 가보기로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연구관으로 향한다.

창의관 앞을 지나 연구관에 들어선다. 엘리베이터 입구 넓이가 전동휠체어의 폭과 딱 맞는다.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부딪히지 않는다. 위층에 도착한다. 이번엔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야 한다. 조종이 서툴러 입구에 한 번 부딪힌다.

연구관 뒤로 나오니 공학관으로 가는 경사로가 있다. 공학관으로 올라가는 인도에는 턱이 있기 때문에 차도로 갈 수 밖에 없다. 지선관 뒤쪽에서 후진하는 트럭이 갑자기 다가온다. 부딪힐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한다. 위를 보니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전동휠체어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위험해 보인다. 결국 왔던 길로 돌아간다.

공학관을 포기하고 탐구관을 지나 상상관으로 향한다. 동선도를 보니 진리관 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이 눈에 띈다. 그런데 진리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난데없이 큰 턱이 보인다. 동선도를 다시 보니 빨강색 보행로라고 표시돼 있다. 방향을 바꿔 우측관과 진리관 사이로 빠져나온다. 완만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동선도에는 그곳에 아무 표시도 없다.

창의관에서 시작해 공학관과 탐구관을 거쳐 우측관, 미래관까지 교내를 다 돌아본다. 4시에 출발하고 학교 한 바퀴를 돌아 정문에 와서 시간을 보니 5시다. 평소 교내를 걸으면 20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고작 15cm의 턱, 휠체어로는 오르지 못할 벽이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 무엇도 쉽지 않다.



커피가 나오기까지

학교를 다 돌고 나와서 근처 카페를 찾는다. 중문 아래 사거리를 지나니 평소 자주 가는 카페가 보인다. 하지만 가게 입구에는 15cm 남짓의 턱이 있다. 넘어갈 수 없다. 카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게에 턱이 보인다. 결국 포기하고 한성대입구역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카페를 찾는다. 보이는 곳마다 입구에 문턱이 있다.

학교 앞에서 골목구석 구석구석 훑지만 문턱이 없는 카페가 보이지 않는다.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 앞까지 내려왔다. 카페를 찾아 나선지 40분이 흐르고 나서야 겨우 하나가 보인다. 입구가 경사로로 돼있다.

휠체어를 밀어 경사로를 올라가니 난관에 봉착한다. 문을 열 수가 없다. 자동문이 아니라 손으로 열어야 하는 미닫이 유리문이다. 경사로에 멈춰서 문을 열려면 한 손은 휠체어 바퀴를 잡고 다른 손으로 문을 밀어야 한다. 점점 힘에 부친다. 휠체어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먼저 들어가던 손님이 문을 열어준다. 혼자서 열려고 했다면 절대 열리지 않았을 문이다. 더운 날씨에 등에는 땀이 나고, 손도 부들거린다.

카페에 들어서자 실내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으로 가득하다. 다행히 테이블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를 끌고도 카페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카운터에 주문을 하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는다. 휠체어에 앉아 자리를 잡기 위해 자리에 있는 의자도 옆으로 옮긴다.

전동벨이 울리고 커피를 가지러 카운터 앞으로 간다. 혹시나 테이블에 부딪힐까 조심해서 휠체어를 민다. 커피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린다. 휠체어는 헛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갈 기미가 없다. 결국 다른 기자가 커피를 옮겨준다. 만약 다른 기자를 대동하지 않고 카페에 들어갔다면 주위에 있는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을 것이다.

다시 집으로 가는 길

집을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선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버튼을 누른다. 좁은 면적에 휠체어를 끼우고 아래로 내려간다.

한성대입구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문을 몸으로 밀어낸다. 휠체어 통로에 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니 승강장의 모습이 보인다.

아침에 휠체어 바퀴가 단차에 빠졌던 것이 생각난다. 승강장 문에는 휠체어용 안전발판이 있다는 내용과 역무실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연락했더니 5분 좀 지나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나타난다. 열차가 오자 출입문에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휠체어를 밀어준다. 발판 덕분에 실수 없이 출입문을 건넌다.

다시 동대문역에 도착한다.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마주친 계단 앞에서 휠체어를 멈춘다. 고개를 돌리니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보인다. 리프트에는 낫선 무전기 모양의 기계와 두 개의 버튼이 있다.

설명서대로 문이 열리는 모양의 버튼을 세계 누르자 알림음이 나온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잠시 후 역무원이 소리를 듣고 다가온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열어줄 겁니다." 설명서에는 혼자 쓸 수 있을 것처럼 적혀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몇 분 뒤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열쇠로 문을 열어준다. 승강기 안에는 상승, 하강, 닫힘, 열림 버튼이 있다. 상승 버튼을 계속 눌러야 올라갈 수 있다. 위에 도착하자 아래층에서 봤던 사회복무요원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다시 열쇠로 문을 연다. 닫힘, 열림 버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호선 17개 정거장을 지나 드디어 회룡역에 진입한다. 다시 엘리베이터 3개를 지나 출발했던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를 접는다. 한성대입구역에서 회룡역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55분. 평소였다면 버스를 타고 이미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다.

· 삼 학 송 ·

지난 학기를 거울삼아

잠잠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며칠 연속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강해져 3월 초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총학생회는 공지를 통해 18일에 대학본부 내 논의를 거쳐 강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18일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사 운영 계획을 밝혔다. 영상 속 이창원 총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속도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상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강의 방식에 대한 답은 없었다.

본교의 소극적인 대응에 학생의 혼란만 더욱 가중됐다. 시간표를 짜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기임에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학교의 태도에 학생은 분노했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강의 방식을 두고 추측만 무성했다. 결국 21일이 돼서야 본교는 공지를 통해 9월 첫째주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과 마찬가지로 블렌디드 강의를 준비하던 타 대학은 발 빠르게 돌아섰다. 지난 18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수도권 내 대학들이 2주간 혹은 한달간 비대면 강의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비대면 강의라는 공지를 21일이 돼서야 내린 본교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같은 상황 속에서 타 대학이 선제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일부 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방식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강의 방식을 구분하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한정했다. 중앙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는 이미 7월 초 학사 운영 메뉴얼을 마련했다. 숭실대학교 역시 7월 30일, 2학기 수업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결정하고 일찌감치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주요대학은 논의 직후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비대면 강의 결정을 발표했다. 물론 누군가는 본교의 결정도 논의가 끝난 뒤 바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본교의 공지는 21일이지만 첨부된 파일은 19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비대면이 결정되고 발표까지 이틀이 걸린 것이다. 본교가 더 빠르게 공지를 발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의 결정을 확인하고 발표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생긴다.

늦은 만큼 본교는 더 빨리 걸어야 한다. 당장 10월에 예정된 중간고사만 하더라도 이미 일부 대학들은 시험 방식을 결정했다. 성적평가 방식까지 공지한 곳도 있다. 심지어 한양대학교는 비대면 강의로 수강신청 정정에 불편을 겪는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정강을 신청 받고 있다. 본교도 서둘러 비대면을 대비하여 기숙사 환불을 비롯한 중간고사 방식, 성적평가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실습·실기 강의 대책, 강의의 품질 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창원 총장은 정기 간담회마다 이런 말을 했다. “코로나19 속에서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지난 학기라는 거울이 있다. 거울 속에 비친 지난 학기를 바라보며,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말이다.

박희연 편집국장

■ 의화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과제

짧은 여름 방학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익숙해진 마스크와 온라인 강의로 2학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입시철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개강을 앞두고 재확산 되면서 대면수업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대학 캠퍼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신입생들의 풋풋한 웃음소리,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동아리 선배의 외침, 강의실에 향하는 학생으로 꽉 찬 엘리베이터, 출석 체크를 위해 복도를 뛰어가는 학생, 시험기간에 환하게 불을 밝히던 도서관, 발 디딜 틈 없던 입학식과 졸업식. 모두 단연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교육의 전면적 도입이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충분히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교수, 직원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학기를 보냈다.

온라인 강의 서비스 및 품질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국내외 대학 관계자는 고등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일부 선도적인 교육관계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온라인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대학 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유대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지금은 공유대학으로 전환되는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학 교육에는 기존 교육체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로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미래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교수, 학생, 대학 모두 주도적인 자세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영화 토이스토리에서 버즈 라이트이어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며 외쳤던 “To Infinity and Beyond(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처럼 학령인구 급감, 온라인 교육 활성화, 대학간 공유 확산 등의 급속한 환경 변화를 발판삼아 우리 대학이 퀀텀 점프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노광현(IT융합공학부) 교수



대학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대학원생이다. 학내구성원이자 학생으로서 진리를 향해 달려 나가지만 대학 내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교 174개 중 대학원생을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으로 정관에 기재한 학교는 단 3개뿐이다. 그들은 학교에 자신들의 의견조차 낼 수 없다. 최성훈 기자

■ 기자수첩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시선을 갖고 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관심 있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 시선이 다르면 보이는 문제도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그 사람에게 맞게 바꿔야 한다.

시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자는 지난 호에 실린 기사 ‘대책 없는 청년의 홀로서기’를 쓰며 큰 물음 앞에 놓이게 됐다. ‘과연 취재한 것을 내 문제라고 느끼는가?’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며, 자취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청년주택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문제에 담긴 청년의 시선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었다.

다른 시선으로 보기

이번 호부터 기자는 당사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르포기사를 기획했다. 처음으로 취재하게 된 아이템은 지체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한 문제였다. 그들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낮아진 시선으로 세상에 나가보는 것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간 학교는 평소 취재를 위해 돌아다녔을 때와는 사뭇 다른 곳이었다. 평소엔 별 것도 아니었던 울퉁불퉁한 바닥을 지날 땐 엉덩이가 저렸다. 눈 앞에 펼쳐진 가파른 경사로를 기자에게 무력감을 줬다. 비좁은 엘리베이터는 사용조차 힘들었다. 휠체어 바퀴가 배수로 뒤편에 빠져 당황하기도 했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휠체어를 탄 채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가게에는

휠체어를 타고는 넘을 수 없는 턱이 존재했다. 겨우 찾은 턱이 없는 카페조차 경사로를 올라가기 힘들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커피를 가지러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비로소 알았다. 휠체어를 타고는 무엇 하나 쉽게 할 수 없구나. 지체장애인의 시선 앞에는 큰 벽이 있었다. 휠체어를 타보지 않았다면 존재조차 몰랐을 높은 벽. 그것은 지체장애인의 문제이자 기자의 문제가 됐다.

기자는 그 벽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허물 수 있도록 호소하는 직업이다. 벽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선을 바꾸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의 바뀐 시선이 모이면 그 어떤 높은 벽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김선우 기자

■ 낙산에 올라

최근 선풍역 할리스커피, 파주 스타벅스 등 수도권에 위치한 각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카페는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3밀(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게다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방문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도 힘들다. 카페에서 영업시간 내내 가동하고 있는 에어컨도 이번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코로나19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카페의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중앙 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영업은 유지하고,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클럽, 유흥업소 등 확진자가 발생했던 다른 사업장에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때와 다른 유한 대처다.

위험한 공간, 카페

2019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2잔의 2.7배 수준이다. 커피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 원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커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의 문을 닫는 방침이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필자 역시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을 마시고, 지인과의 약속을 계획할 때 역시 식사 후 커피전문점에 가는 경우가 많다.

방대본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했다. 강화된 카페 방역지침에 따르면 카페 방문자는 음식을 섭취하는 그 순간을 제외 하고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 내 탁자 사이 간격도 2m를 유지토록 한다.

방역지침을 강화했지만 유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해당 방역지침 시행 이후 여러 카페를 가보았더니, 5개 중 단 1개의 카페만이 방역지침 준수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방대본이 카페 중 대부분은 손님에게 마스크 필수착用に 대해 알리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고, 방문자 역시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대본은 카페에 대해 더욱 현실성 있고 확실한 방역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카페 이용자 수는 그대로 두고, 방문자와 사업자의 동참에 의존하는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카페가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카페 산업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이크-아웃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를 권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하연(사회과학 3)

기자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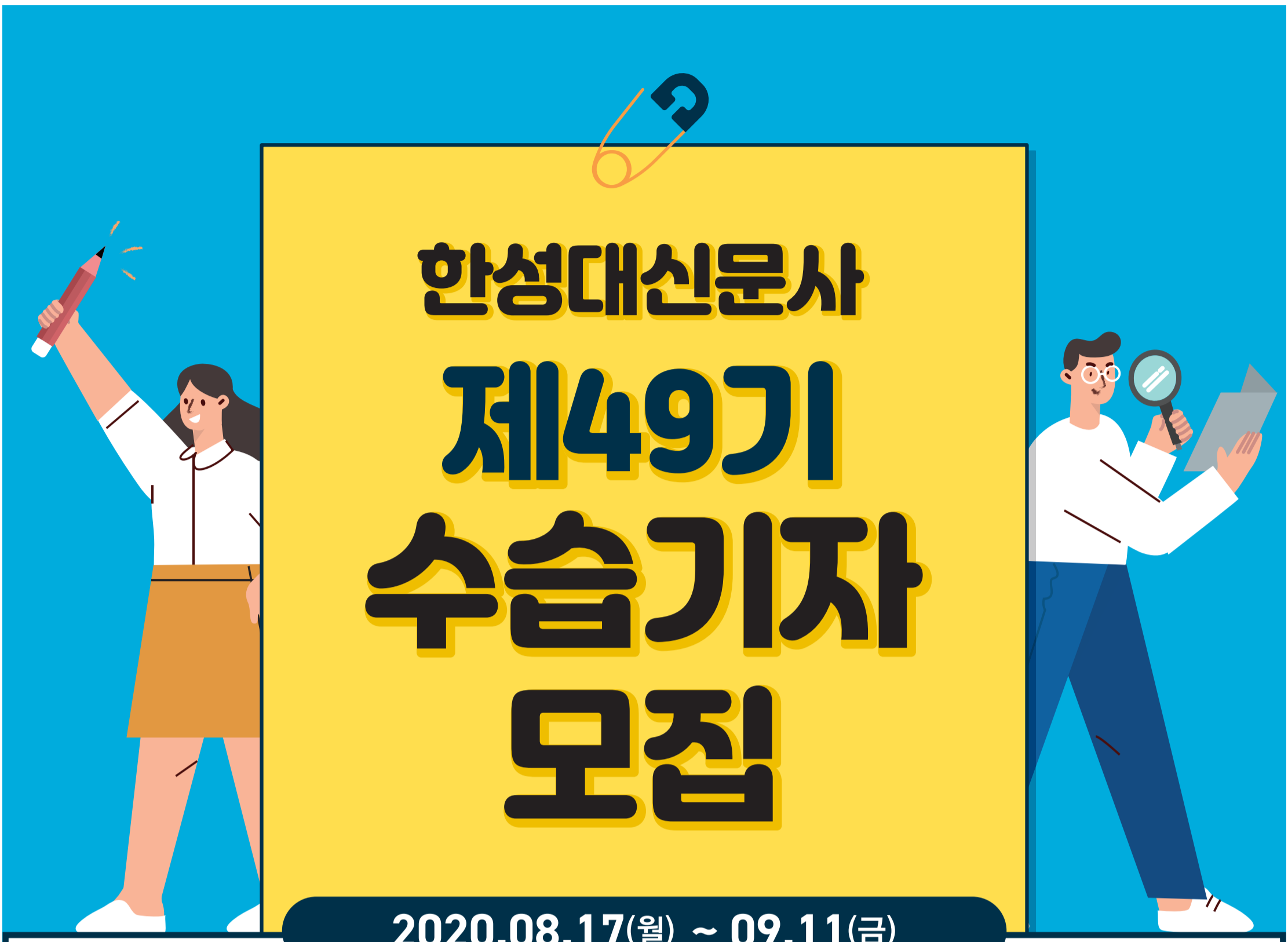
- 임 편집국장 박희연(사회과학 3)
- 부장기자 안현경(사회과학 3)
- 정 기자 이슬비(인문 1) / 조정은(인문 1) / 김선우(IT 1) / 주진솔(IT 1)

면

편집국장 장선애(사회과학 4)

동정란

- 공호근(자율교양학부) 교수 공 교수는 지난 8월 24일 관세청 승진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 이지영(핵심교양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6월 22일 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대학교교양교육협의회 춘계학술대회 세션 운영 교양우수강의시연에서 <상상력 이노베이션>시연으로 우수 교원에 선정됐다.
-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6월 「교육과 사회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저서를 발간했다.



2020.08.17(월) ~ 09.11(금)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본교 재학생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 웹사이트(www.hansungnews.com) 또는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동안 (2020년 9월~2022년 6월)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박희연 편집국장 010-3412-1839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